

SF 종교 서사의 존재 지평과 가능성

윤인선(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1. 들어가며

과학소설은 종교와 신학적 주제를 고유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주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학소설은 하느님을 신학적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과 신도들 그리고 비신도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소설은 때로는 인간의 존재 조건에 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종교적 경험에 대해 또는 신앙의 독창적인 해석에 대해 기존 문학의 시각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통찰을 보여준다. 이때 종교와 관련하여 과학소설이 가장 주목하는 국면은 기존의 인식이 흔들리는 조건이다. 가령 외계인과 우리 사이의 위상정립이란 패러다임에서 야기되는 온갖 질문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흔히 과학기술에 관한 서사, 특히 탐험이나 모험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질 베른의 <해저 2만리>와 같은 서사)크게 다음의 유형을 가진다고 논의되었다.

1)제국주의, 미지와 탐험 2)착한 기술과 나쁜 기술 3)이원론 혹은 일원론적 사각 4)과학주의와 계몽주의

하지만 종교를 다루는 경우에는 이러한 삶의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사회적 현상과 조건의 문제로 영역을 확대한다.

2. 사후의 삶 또는 환생과 윤회에 관한 SF 종교 서사

초기 과학 소설에서는 영혼이 존재한다면 혹여 그것을 붙잡아 확인할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들이 적지 않다. 찰스 B 스틸슨의 <자유나 죽음이나>1917는 이러한 포획 장치를 개발한 과학자들의 이야기이며, 앙드레 모로와의 <영혼의 저울>1931과 로메인 개리의 <혈떡거름>the gasp1973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그 존재를 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이야기이다.

이후에는 과학 기술을 통해 육체를 포기하고 영혼/정신의 영생을 누리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가령 아서 C 클락의 <도시와 별들>1956은 도시의 메인컴퓨터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된 사람들의 인격이 주기마다 신생아의 육체에 이식되어 윤회하는 아득히 먼 미래사회가 이야기의 배경이다. 일종의 기계에 의지한 윤회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제임스 블라시의 단편 <예술작품>1956은 과학자들이 정신조각 기술을 이용하여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의 정신을 재창조해서 살아있는 신체 기증자의 몸에 이식하는 이야기이다. 새롭게 돌아온 인격이 원주인의 인격과 공존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로버트 실버버그의 장편 <다시 살다>1969 역시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과학소설 중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실버버그(Robert Silverberg)의 주요 관심이었다. 장편 <되살려 내기>1958(죽은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심각한 뇌손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 <망자와 함께 태어나>1974(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이해가 일치할 수 없는 대치 국면을 통해 뭐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마는 우리 인간의 독단선

에 대한 서사)가 대표적이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성체로 확장하면서 계급적 시각을 드러내는 작품 역시 존재한다. 즉 의학기술의 독과점으로 인해 아주 오래 장수하는 자들과 정해진 수명대로 사는 보통사람들이 같은 시공간에 존재할 때 벌어지는 이야기적 배경이 존재한다. 로저 켈라즈니의 장편 <빛의 왕>1967은 외계행성에 정착한 지구인들이 의학기술과 모든 과학을 독점한 소수의 1세대 과학자들과 이들을 힌두교의 만신전처럼 떠받드는 무지한 일부 백성으로 양분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어느 날 세습된 권력에 세뇌된 후자의 사람들을 각성시키려는 외로운 침회자(자칭 부처)가 홀연히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발생하는 이야기이다.

또한 환생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사변적인 작품들도 있다. 필립 호세 파머의 <리버월드 시리즈>1971~1983는 인류역사상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환생하는 외계행성 '리버월드'를 무대로 인간의 존립 가치에 대해 질문하는 이야기이다.

대표작품

Arthur C. Clarke <도시와 별들> 1956
Philip K. Dick <유빅> 1969
Robert Sheckley <불사판매주식회사> 1958
신윤수 <필명의 변> 2007

3. 선악 대결, 천사와 악마에 관한 SF 종교 서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1886에서 보듯이 선악의 문제는 과학소설에서 핵심 가치를 차지해 왔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선악의 도덕률에서 각기 양극단을 대표하는 상징인 천사와 악마는 여전히 중요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과학소설에서 악마를 다루는 방식은 공포소설이나 환상소설의 공식을 답습하는 경우(헨리 커트너의 <그를 악마라 불러다오>1946)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전형에서 벗어나는 경우(앤소니 부처 <스널백>1941)도 있다. 후자의 경우 한탕주의 사고를 떨쳐내지 못한 한 사내가 스널백이라는 이름의 변변치 못한 악마를 소환해 미래를 미리 알아냄으로서 손쉽게 돈을 벌려한다. 하지만 이 악마의 힘으로는 시간의 인과율을 역전시키지는커녕 그 순화되는 시간 고리에 갇혀 배번 고배를 마신다.

악마의 전형에 관하여서는 아서 C 클릭의 <유년기의 끝>1953이 가장 도발적인 해석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악마에 대한 획일화된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작가는 작품에서 인류의 가속 진화에 산파노릇을 하는 외계인을 성서 속 악마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대표작품

김보영 <땅 밑에서> 2007
Philip K. Dick <성스러운 침입> 1982
<신세계 에반게리온 시리즈>
Arthur C. Clarke <유년기의 끝> 1953
Robert Louis Stevenson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 1886

4. 생명의 창조에 관한 SF 종교 서사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은 과학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통해 조만간에 신이 태초에 하신 일을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품게 되었다. 즉 인간의 생명, 그것도 되도록 최대한 지적인 생명의 창조에 관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과학소설에 묘사되는 지적 생명의 창조행위는 1970년 유전공학이 획기적인 발돋움을 하기 전부터 복제인간처럼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개념을 받아들였다. 필립 K 디크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1968이 좋은 예이다. 또한 오경문의 <오래된 이야기>2007 역시 첨단 유전공학을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종의 창조에 관한 서사를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은 아담과 이브의 축소판 천지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작품

Mary Shelley <프랑켄슈타인> 1818

Alexander beliaev <모로 박사의 섬> 1896

오경문 <오래된 이야기> 2007

Arthur C. Clarke <유년기의 끝> 1953

Pilip K. Dick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1968

5. 종말론에 관한 SF 종교 서사

과학소설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종말의 근거는 고대부터 중세까지 사람들을 흑세무민했던 종교적 종말론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의 메리 셸리의 장편 <최후의 인간>1826은 전염병으로 인류가 전멸하는 이야기의 효시이다. 역병으로부터 세 사람이 살아남지만, 그나마 둘은 폭풍으로 바다에 빠져 죽는 바람에 지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 혼자 텅빈 도시를 방황한다. 21세기에 발표된 마가렛 앳우드디 <홍수>2009에서는 <최후의 인간>과 유사한 상황을 전제로 살아남은 소수의 금욕주의적 종교집단이 고대 근동의 쿵란 지방에 존재했던 예세네파 공동체처럼 타락한 인류가 초래한 멸망의 날을 준비하는 이야기이다.

종말의 규모를 확장하여 우주 전체 내지 목수우주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 올라프 스타플든의 <스타메이커> 1937은 우주들의 진화와 죽음 그리고 재탄생을 유체이탈한 주인공이 시공을 초월해 생생하게 목도하는 장엄한 서사로 종교적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모자람이 없다.

또한 이승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SF의 틀을 빌려서 이야기한 작품도 존재한다. 클리포드 D. 시맥의 <시간이여 돌아오라>1951는 장기간 실종되었던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한 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야기이다. 이 우주비행사가 머물렀던 먼 외계행성에는 다른 아닌 우리의 영혼들이 살고 있었다. 그가 그 행성에서 겪은 혼란스러운 동시에 뒷구박죽된 관찰 내용은 종교 갈등은 물론 무기야 전쟁을 야기한다.

대표작품

Mary Shelly <최후의 인간>1826

H. G. Wells <타임머신> 1895/<두 세계들 간의 전쟁>1898

Olaf Stapledon <스타메이커>1937

배명훈 <신의 궤도> 2011

6. 하느님 또는 하느님들에 관한 SF 종교 서사

6.1. 자애로운 신, 사랑과 치유의 신

마리 코렐리의 <두 세계의 로맨스>1886에서는 종교적 체험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전기적 성질을 보인다. 심지어는 하느님의 현현할 때 역시 순수하게 전기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필립 K 디크의 <성스러운 침입>1981에서 아예 우주의 창조주이자 절대자인 신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지구에서 쫓겨난 신이 인간 여성의 아기로 태어나 지구에 잠입한 뒤 타락한 인류를 벌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6.2. 파괴의 신, 인간에 적대적인 신

과학소설에서 신 혹은 그와 유사한 존재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진짜 신이 아니라 신을 대체할만한 존재일 경우에는 심중팔구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넘어서는 초인과 외계인, 인공지능 혹은 그 이외의 지적 존재에게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댄 시몬즈의 <하이페리온 영웅담>이 있다.

6.3. 인간사에 개입하는 신

극히 드물지만, 고도의 지성체가 인간사에 끼어들어 어느 한 편을 드는 작품도 있다. 필립 K 디크의 <프롤릭스 8에서 온 우리 친구들>에서는 인류간의 갈등의 조정자로서 고등문명의 외계인이 나타난다.

대표작품

이재일 <리셋 지구> 2012

7. 메시아사상에 관한 SF 종교 서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사색을 담은 과학소설의 뿌리는 세태풍자 목적으로 쓰여진 17~18세기 근대 유럽의 일부 소설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윌리엄 고드윈의 <달의 사나이 또는 저편 세상 여행기>1638과 존 월킨스의 <달세계 발견>1638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경우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주인공이 첫마디가 바로 “예수 마리아”이다. 그러자 달의 원주민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예수의 유일한 현신에 동의하며 무릎을 꿇는다. 반면 달의 원주민들이 아담의 혈족인지 그들이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정황하게 늘어놓은 <달세계 발견>은 달 주민들 또한 지구상의 인류처럼 원죄를 지었을 수 있기에 예수의 순교와 같은 정화 절차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그분이 오셨습니다.>와 마이클 비숍의 <가말리엘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작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메시아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메시아 사상이 잘 나타나는 과학소설의 경우 시간여행물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는 누구나 한번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의 예수와 붓다를 직접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 마이클 무어콕의 <이 사람을 보라>와 박성환의 <관광지에서>이다. 전자의 경우 개인적인 고뇌를 예수를 만나 털어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타임머신을 타고 서기 28년으로 돌아간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이때 주인공은 마리아, 예수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하이페리온의 몰락> 1990에서는 메시아의 생김새는 고사하고 출신 성분 자체가 통상적인 인식의 패러다임을 넘어선다. 인류와 인공지능 군집이 상대방을 불신하며 전면전도 불사하는 먼 미래, 인간 여성이 사이브리드(인간의 육체+인공지능의 인격) 남성과 사랑에 빠져 양대 진영의 화해와 공존을 도모하는 이른바 '가르침을 주는 자'가 될 운명의 아기를 수태하는 이야기이다. 반면 박성환의 <관광지에서>는 메시아를 그린 서구소설들과는 다르게 한쪽에 치우치거나 괴이한 형상이 아닌 상당히 불교스러운 결론을 내린다.

대표작품

Arthur C. Clarke <도시와 별들> 1956

Michael Moorcock <이 사람을 보라> 1969

박성환 <관광지에서> 2010

Dan Simmons <하이페리온의 몰락> 1990

8. 포교 또는 선교에 관한 SF 종교 서사

종교적인 테마를 담은 과학소설들 가운데에는 외계종족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포교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시련에 봉착한다. 외계인 대신 포교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전망을 풍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해리 해리슨의 <아슈켈론 거리> 1962이다. 또한 로렌스 와에반스의 단편 <신앙을 고수해라> 1991 역시 외계인들이 기독교 신앙체계를 인간처럼 이해하지 못한 탓에 벌어지는 웃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교가 얼마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인지 돌아보게 한다.

특히 제임스 블리시의 <양심의 문제> 1958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메리 도리아 러셀의 장편 <참새> 1996의 결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잔혹하게 그린다. 예수회 사제와 과학자들이 지적 존재들이 살고 있는 행성 라켓으로 탐사를 떠나는 과정을 그린다. 이 소설은 단지 유전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종을 불문하고 어니 사회에나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이해관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비극을 강렬하게 그린다. 즉 지구의 종교를 포교하겠다는 희망찬 기대 자체가 얼마나 일방적인 허상이었는지 반문한다.

이방세계와 외계인을 대상으로 포교에 나선 이가 꼭 선교사나 신부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신약성서라는 기독교 신앙의 원인 제공자인 그리스도교가 직접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설득하는 과학소설도 있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그분이 오셨습니다.> 1948은 아예 예수를 이 행성에서 행성으로 끊임없이 포교하고 돌아다니는 여행자로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메시아 혹은 예수가 단지 지구인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표작품

Ray Bradbury <그분이 오셨습니다.> 1948

Mary Doria Russell <참새> 1996

9. 이상 숭배와 이단에 관한 SF 종교 서사

과학소설에서 이상숭배와 이단 논쟁은 권력다툼을 넘어, 세상의 멸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필립 K 디크의 단편 <신성 논쟁>1966에서는 자신과 닮은 이상의 숭배를 근절시키고 이단을 원천제거하기 위해 열핵전쟁을 서슴지 않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또한 과학소설에서 종교적 이단의 문제는 외계인과의 접촉을 다룬 소재에서 나타난다. 필립 K 디크의 단편 <라우타바라 사건>1980이 좋은 사례이다. 자기장을 측정하러 우주 탐사에 나온 여성 대원 라우타바라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마침 사건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프라즈마 형태의 외계인들이 보낸 로봇이 간신히 그녀의 두뇌 부분만 살려낸다. 그녀의 낮은 의식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 외계인들은 예수의 형상을 한 메시아를 등장시킨다. 하지만 그의 언행은 이 지구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다. 이러한 모습이 라우타바라는 광분한다. 이 과정에서 프라즈마 외계인들의 신앙이 터무니없는 이단이라면 우리의 신앙체계 역시 그들의 눈에는 이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대표작품

Philip K. Dick <신성논쟁>1966/<라우타바라 사건>1980

10. 신정체계에 관한 SF 종교 서사

신정사회를 그린 과학소설은 신에 의한 독재체제가 그려지는 모습의 원인을 종종 핵전쟁이나 가공할 위력의 전염병과 같은 경천동지할 대재앙에서 찾곤한다. 현대문명의 질서가 지구촌을 뒤흔드는 위기를 맞아 붕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흑세무민하는 종교지도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퇴행적이고 야만적인 정치구조의 하수인들로 그려진다. 프리츠 라이버의 <모여라 어둠이여>1943, 라잇 블랙킷의 <기나긴 내일>1955, 마가렛 앳우드 <시녀 이야기>1985, 키쓰 로버츠의 <카이트월드>1985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표작품

Robert A. Heinlein <이대로 간다면>1940

Margaret Atwood <시녀 이야기>1985

11. 참회 또는 고행에 관한 SF 종교 서사

고생은 굳이 종교적인 색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 간의 이해와 관용으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어슐러 르 권의 <어둠의 왼손>1969에서는 인간과 휴머노이드 토착민 지도자가 서로 동거오락하여 고행 끝에 종족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상호 이해의 길에 도달한다.

참회의 경우 오슨 스캇 카드의 <사자의 대변인>198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예수는 인간의 원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린다. 반면 인간의 아들인 주인공 앤더 위킨은 자신이 저지른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선다.

대표작품

Orson Scott Card <사자의 대변인>1986

Philip K. Dick <작고 검은 상자>1964

Ursula le Guim <어둠의 왼손>1969

12. 천국과 지옥에 관한 SF 종교 서사

과학기술의 발달은 천국과 지옥을 가상현실 속에 구현함으로써 신화와 전설에서 보다 더욱 생동감을 전달한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지옥을 재현할 때 두드러진다. 그렉 베어의 장편 <천사들의 여왕>1990과 이언 M뱅크스의 <표면의 디테일>2010은 사이버지옥을 배경으로 가상현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로테스크한 극단을 보여준다.

앞선 작품이 가짜 현상을 바탕으로 했다면 실제 지옥을 무대로 한 것도 있다. 래리 니븐과 제리 퍼넬이 쓴 <지옥>1975는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과 루이스의 종교 환상 소설 <위대한 이혼>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지옥에 떨어진 한 과학소설 작가가 자신이 경험하는 기이한 세상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명하려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표작품

Greg Bear <천사들의 여왕>1990

Iain M Banks <표면의 디테일>2010

Larry Niven & Jerry Pournelle <지옥>1975

13. 기독교주의에 관한 SF 종교 서사

과학소설은 작가에 따라 기독교 사상에 대한 애정과 회의, 혐오 또는 고뇌가 오가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C. S. 루이스의 <우주 삼부작>1938~1946이 기독교 사상 전파를 위해 쓰여진 연작이라면, 로버트 A. 하인라이의 장편 <낮선 땅의 이방인>1961은 정치사회적으로 혼탁했던 1950~60년대 미국에서 갈팡질팡하던 기독교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독교 사상을 소재로 신앙의 근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아서 C. 클라의 <베들레헴의 별>1955 역시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성환이 <불교 sf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단편 소설을 모은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대표작품

C. S. Lewis <우주 삼부작>1938~1946

Arthur C. Clarke <베들레헴의 별>1955

Robert A. Heinlein <낮선 땅의 이방인>1961